

1999년도 세계 통상 환경과 타이어 수출 전망

李 吭 九*

대공황으로까지 치닫던 세계 경제가 지난 10월 이후 다시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 동반 추락하였던 세계 증시가 선진국의 금리 인하로 상승세로 돌아서고 러시아와 중남미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가 수그러 들면서 세계 경제는 안정세를 되찾은 듯 하다. 그러나 1999년 세계 경제는 90년대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유럽 경제의 성장 둔화와 일본 경제의 침체 지속 및 개도국 경제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1998년보다 낮은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남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소로스 역시 1999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시계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성장 둔화와 함께 1999년 세계 통상환경은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확대에 따른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의 단일통화인 유로(Euro)가 출범하면서 유럽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소위 밀레니엄 버그로 불리우는 컴퓨터상 2000년 표기문제인 Y2K의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21세기를 목전에 둔 1999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예

상이어서 타이어업체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사전 대응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세계 경제 전망

가. 북미 경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는 1999년에 1998년의 3.5%보다 낮은 1.9%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 행정부와 연준리는 미국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경기부양을 촉구해 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리는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서방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자국 증시와 세계 증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역 상대국에 대해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개도국들이 수출확대를 통해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해 온 바 크다. 그러나 미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자국

* 産業研究院, 産業國際化研究室 首席研究員

의 무역수지적자를 더 이상 감내하기가 어려워지자 EU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EU가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자 양지역간 통상마찰로 비화되었다. 세계 경제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EU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경제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통상환경이 악화될 전망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1999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 유럽 경제

(1) EU

1999년 EU 경제는 유로(Euro)화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된다. 유로화에 가입한 11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급변할 또 다른 '유럽의 10년'을 예측하면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EU 15개국 중 유로화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이며 그리스는 자격 미달로 가입이 보류되었다. 유로화의 출범은 EU의 대외 수입을 확대시키기보다는 EU역내 교역을 활성화시켜 역외국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달러, 유로, 엔화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 EU, 일본간의 통화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함께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하되어 유럽의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심화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주요국가간의 통상마찰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유럽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동안 유럽경제를 압박해 온 실업률도

최근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999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1998년에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경제는 1999년에 선진경제권에서 가장 높은 2.3%의 성장률을 기록한 예상이다.

(2) 동구

러시아 경제는 1999년에도 경기 위축과 물가 및 환율 불안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외 수입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둔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러시아의 개혁주의자들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 왔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동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1998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5.7%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8.3%의 성장 감퇴를 겪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채무가 금리를 수직 상승시켜 경제를 침체의 골로 몰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26억 달러에 달하는 IMF의 구제금융도 러시아 경제의 공황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인 실정이다. 러시아가 현재 추진중인 대내외 채무 만기 조정에 실패할 경우 공공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국제 금융시장을 또 한번 위기속에 몰아 넣으면서 세계 경제를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구소련연방국가들도 러시아보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제경제 시스템을 재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정치적인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경제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벨로루시는 러시아와의 재통합에 합의하였으며, 이

〈표 1〉 동구 및 러시아 경제 전망

	(단위 : %)	
	1998	1999
체코	-0.7	1.3
헝가리	5.1	4.6
폴란드	5.7	5.1
루마니아	-4.0	0.0
슬로바크	5.0	3.0
러시아	-5.7	-8.3

자료 : OECD

타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재통합을 고려하고 있다.

동구국가들의 경우 그동안 확실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실천해 온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동구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1998년의 2.5%보다 낮은 2.2%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 아시아 경제

금융위기로 지난 1년 반동안 극심한 몸살을 앓아 온 아시아 경제는 1999년에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는 일본 경기의 회복 속도와 중국 위안화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 일본 경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는 1999년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아시아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24조엔을 투입하여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얼어붙은 일본 소비자의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소비자 심리의 회복을 위해 일본 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편이다. 일본 정부는 1999년 성장률을 1%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내외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199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IMF는 일본 경제의 1999년 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침체는 아시아 각국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게 되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 중국

중국 경제는 아직까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지 않으나,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팽창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디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시작한 1979년 이후 최대의 사회간접자본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8.8%를 기록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상반기에 7%로 하락하였으나 1998년 전체로는 7.8%를 기록할 전망이다. 1999년에도 중국 경제는 1998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달성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전세계 국가가 우려하고 있는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단기적으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함으로써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세계 경제공황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중국의 수출이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부진할 경우 위안화가 10% 정도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아세안 및 인도

동남아 경제는 1999년에 1998년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1999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나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은 0.5~1.0%의 성장률을 보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정치, 사회불안의 지속

〈표 2〉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전망

	(단위 : %)	
	1998	1999
홍콩	-5.0	-2.0(-1.6/-1.0)
싱가포르	0.0	1.0(0.4/-0.8)
대만	5.0	5.2(4.3/3.9)
인도네시아	-15.3	-3.0(-4.3/-3.4)
말레이시아	-6.0	-2.0(0.4/-2.0)
태국	-7.0	0.5(-0.7/1.0)
필리핀	0.2	1.0
중국	6.5	6.0(7.2/6.6)
인도	5.0	5.2

자료 : ADB;Dow Jones; IMF.

주 : ()안은 Dow Jones 11개 금융기관전망치와 IMF전망치임.

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것이며, 말레이시아는 국내 민간 수요 및 설비투자의 감소로 성장이 부진할 전망이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경제 역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수출 둔화, 외국인 투자부진, 통화절하 압력 등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999년에는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본 자유화 및 기업의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 정국은 인도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에 반발한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의 1998년 경제성장률은 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9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라. 중남미 경제

1999년 중남미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경색, 주요 수출품목인 1차 상품 국제가격의 하락과 엘리뇨 및 중미지역의 태풍 피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1998년보다 다소 낮은 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경제는 역대 경제대국인 브라질 경제의 향방에 따라 성과가 달

〈표 3〉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	
	1997	1998	1999	1998	1999
아르헨티나	8.6	4.8	1.8	1.2	0.6
브라질	3.7	0.8	-3.0	2.3	8.0
칠레	7.1	4.8	1.0	5.0	5.0
멕시코	7.0	4.3	2.3	16.6	13.3
전체	5.5	2.3	2.0	8.8	9.4

자료 : J.P. Morgan.

리 나타날 전망이다. 1998년 11월 IMF가 4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브라질에 지원할 것을 결정하여 중남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브라질 레알화의 평가절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레일화의 평가절하가 중남미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유발할 경우 중남미 금융시장은 또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을 또 한차례 혼미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

멕시코는 금융시장의 혼란, 초긴축 정책, 1차 상품가격의 하락 등으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최대 수출 시장인 브라질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8년 경제성장률이 4.8%에 달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9년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2% 미만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칠레 역시 최대 교역 상대인 메르코수르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마. 중동 아프리카 경제

국제 상품시세의 하락은 아프리카와 중동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정국의 혼미와 취약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동경제는 오일달러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정부지출의 축소와 세율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

(1) 중동

1999년 중동 경제는 석유가격 하락세의 지속과 정정 불안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국별로는 이집트와 알제리가 5.5%와 4.5%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예상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은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2%의 성장세에 그칠 전망이다. 이집트 경제는 유가하락과 관광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수출 호조,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 등에 따른 외자 유입으로 인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 아프리카

아프리카 경제는 금세기 말 이후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EIU는 1998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1.1%로 둔화되고 1999년에 회복세를 나타낸 것이나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정정이 불안한 나이지리아, 내란을 겪고 있는 앙골라, 콩고(구자이르), 시에라레온, 수단, 우간다와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및 경제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케냐,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공의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아프리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경제가 부진함으로써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염에 따른 상품가격의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남아프리카 주요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발하였으며, 아프리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상품의 가격 하락은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시장의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순방외교를 강화하고 있어 아프리카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될 전망이다.

2. 세계 통상 환경 전망

1998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대비 2.2%가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35.4%나 감소하면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39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수출이 1958년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유는 물량 기준으로는 18.5%가 증가하였으나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대폭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1999년 세계 통상 환경은 1998년에 비해 열악해 질 전망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예상이며,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의 대외 통상 압력이 거세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예상이며 이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1998년 이 국제금융위기의 해라면 1999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세계적인 과잉생산 능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선진 각국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통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가 남발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시장 개방을 위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와 동남아 개도국은 경제난국을 타개

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99년 하반기부터 협상이 시작될 국제무역기구(WTO)의 경쟁, 투자, 농업부문의 뉴라운드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로화의 출범은 우리의 수출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유럽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유로화는 유럽 역내 국가간의 교역을 증대시켜 역외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역내 국가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우리의 대유럽 수출을 그만큼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유럽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어 유럽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국내 수출업체들은 여타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게되어 우리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유로화 출범이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1999년에도 국제금리와 원유를 비롯한 1차 상품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998년 하반기에 미국을 필두로 선진 주요국은 자국의 금리를 인하하여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주요국의 금융완화정책은 1999년에도 자국 경기의 부양을 위해 유지될 예상이며,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세계팽창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나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금융경색 현상은 1999년에 1998년보다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가 역시 1999년에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 기업의 초미의 관심사인 엔화 가치는 선진국간 금리격차의 축소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1999년에 1달러당 110~125엔 사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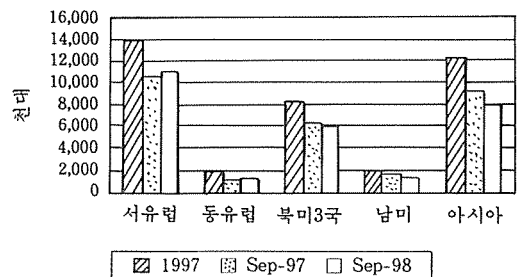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유로화 수요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130~145엔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유로화 출범에 따른 상대적인 달러화 수요감소와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따른 달러화 약세 기조로 1,100~1,250원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3. 세계 자동차 산업 전망

1998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1998년 1~9월중 전세계 승용차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3%가 감소한 2,815만 9,000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승용차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승용차 생산은 동기간중 전년대비 16.5%와 13.2%가 각각 감소하였다.

1998년 1~9월중 전세계 승용차 판매 역시 서유럽과 중동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였다. 아시아지역의 승용차 판매는 동기간중 전년대비 22.5%가 감소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의 판매는 15.1%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계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5%가 감소한 2,716만 2,000대에 그쳤다.

이와 같이 전세계 승용차 생산과 판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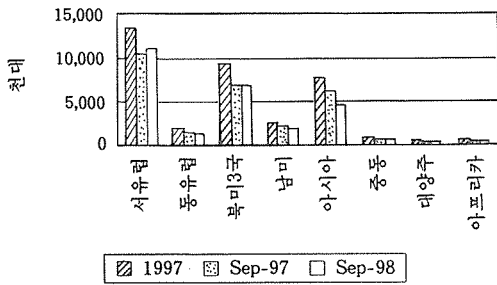


자료 : Financial Times, 1998.12.3.

주 : 1998년은 1~9월중 실적임.

〈그림 1〉 주요 지역별 승용차 생산 현황

감소한 가운데 1998년 국내 자동차업체의 수출은 199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세계 자동차시장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의 판매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국내 자동차업체의 유럽 승용차시장 판매는 1998년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31.4%가 증가하였으며, 미국시장에서의 판매는 기아자동차의 판매



자료 : 전계서.

〈그림 2〉 주요 지역별 자동차 판매 현황

〈표 4〉 주요 자동차업체의 구미 자동차시장 점유율 추이

업 체	판매 대수	증감률	점유율 (단위 : 천대, %)	
			(’98)	(’97)
GM	4,172	-3.9	29.2	31.2
	1,527	1.2	11.4	12.0
포드	3,566	4.2	25.0	25.3
	1,378	-2.3	10.3	11.3
다임러/ 크라이슬러	2,461	10.8	16.3	15.3
	587	27.0	4.4	3.7
폴크스바겐	202	60.4	1.4	0.9
	2,399	11.8	17.9	17.1
도요타	1,222	9.8	8.6	8.0
	400	14.5	3.0	2.8
일본업체	3,372	3.2	23.6	23.5
	1,588	8.6	11.9	11.8
한국업체	200	42.9	1.4	1.0
	348	31.4	2.6	2.1

자료 :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자료에 의거 작성.

주) : 1) 1~11월중 실적임. 2)

미국시장
유럽시장

- 3) 미국의 판매는 승용차 및 경트럭 판매, 유럽은 승용차 판매임.
- 4) 점유율은 승용차 시장 점유율임.

가 전년동기대비 98.2%가 증가하면서 42.9%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으나 미국시장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적이다.

한편 전세계 자동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자동차업체간의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세계 자동차업체는 빅 5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자동차업체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 갇혀 있는 사이 미국, 유럽, 일본업체간에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모색해 왔던 GM과 포드가 중국에 투자진출한 후 일본 자동차업체의 지분을 활발히 인수하고 있어 범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구조개편에서 국내 업체가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표 5〉 세계 자동차업체의 재편 구도

빅 5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도요타	폴크스바겐
유럽 협력업체	오펠(100%) 사브(50%) 스카니아	볼보 재규어 애스턴 마틴 푸조 르노 BMW		폴크스바겐	세아트 아우디 롤스로이스 람보기니 스코다
일본 협력업체	이스즈 스즈키 도요타	마즈다 닛산	미쓰비시 닛산	다이하쓰 히노	

〈표 6〉 EU의 승용차 가격 격차 현황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가격	점유율	가격	점유율
오펠 코르사	24.0	43.5	BMW 318	12.0
포드 피에스타	44.7	26.0	아우디 A4	13.0
르노 클리오	33.8	33.8	포드 몬데오	58.5
푸조 106	21.1	27.9	오펠 벡트라	18.2
폴크스바겐 폴로	36.7	46.2	폴크스바겐 파세트	36.4

자료 : EU 집행위.

빅 5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는 지난해 유가 하락에 따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경트럭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승용차 판매를 능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연비가 높고 실내면적이 넓은 1만 3,000~1만 7,500달러대의 고급형 소형승용차를 앞다투어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연방연비규제법을 회피하고 증가하고 있는 중고승용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계 자동차업체들은 유로화의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 각국간 세율과 운송비용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는 존재할 것이나 지금과 같은 큰 폭의 국별 가격격차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유로화 출범전까지 제약을 받아왔던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선택권이 자유로워지면서 소비자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예상이며 인터넷이 이러한 상거래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4. 타이어 수출 전망

가. 세계 타이어업계 동향

아시아 금융위기는 세계 주요 타이어업체들의 1998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컨티넨탈사와 굽이어사의 영업이익은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한 반면 미셸린, 브리지스톤, 스미토모사의 영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1998년 상반기중 미셸린과 브리지스톤사의 북미 영업실적이 호전되었으나 아시아시장의 판매는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상반기중 세후 순이익면에서는 굽이어사가 수위를 차지하였

〈표 7〉 주요 타이어업체의 경영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판매액	증감률	세전수익	증감률	순수익	증감률
브리지스톤	8,197.0	n.a.	n.a.	n.a.	350.9	n.a.
미셸린	6,779.5	6.8	453.2	-8.5	290.4	-11.8
굽이어	6,231.5	-4.0	588.9	17.8	375.8	3.6
피렐리	3,244.2	2.1	224.4	9.0	152.0	6.7
컨티넨탈	3,150.0	6.1	186.6	62.0	n.a.	n.a.
쿠퍼	899.3	7.0	94.0	3.5	58.9	4.0
스미토모	794.5	-1.9	27.5	-21.8	12.9	-32.2

자료 : European Rubber Journal, 199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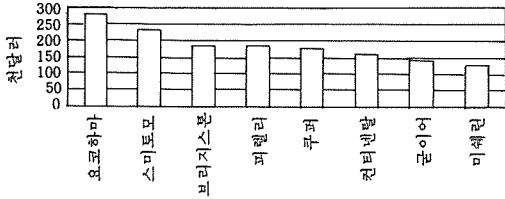
주 : 1998년 상반기 기준.

으며, 매출액 대비 세전 이익률면에서 쿠퍼사가 10.5%를 기록하여 굽이어사(9.5%)를 앞질렀지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면에서 굽이어사가 6.59%를 기록하여 쿠퍼사(6.55%)를 누르고 수위를 차지하였다. 미셸린사는 영업비용 상승과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상반기 영업이 부진하였던 미셸린사는 북미와 유럽지역 타이어 가격의 상승세, 유럽내 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의 확충, 물류 및 기타 변동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 하반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유로화 출범과 자국내 생산 비용 증가에 따라 독일 타이어업체들은 구조개편(restructuring)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독일 타이어업체들은 비용절감과 함께 저비용 해외생산기지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로화 출범에 따라 유럽지역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 타이어업체들의 생산은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타이어업체의 생산비율을 고무수요를 기준으로 살펴 볼때 승용차



자료 : 전계서.

〈그림 3〉 주요 업체별 생산성 비교

용 타이어가 41.5%,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가 26%, 경트럭용 타이어가 1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용 타이어의 생산 비중은 1990년의 37%에서 1997년에는 41.5%로 증가하였다. 타이어의 경량화와 함께 일본의 래디알 타이어의 생산비중은 승용차용이 90% 이상, 대형 트럭용 타이어가 85%, 경트럭용 타이어가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타이어 수출은 엔화 약세와 북미 및 개도국에서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용 타이어 수출은 1993년 이후 50%가 증가하여 1997년에 3,280만개를 기록하였다.

나. 타이어 수출 전망

지난 11월 그동안 부진하였던 우리나라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엔화는 1달러당 110엔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별 수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1999년 세계 경제 전망이 1998년에 비해 비관적이어서 해외시장 여건은 1998년보다 열악해 질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 지역 경기가 1999년에도 1998년보다 큰 폭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미국 경제 역시 금년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수입 수요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상품의 수입을 꾸준히 늘려 온 EU의 대외 수입도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에 따라 1999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1998년에 비해 미증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98년 타이어(고무제 공기타이어) 수출은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별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된 EU와 미국에 대한 수출(1~11월 기준)이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브라질,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멕시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해 타이어 수출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한 것과 달리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외화 획득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99년 국내 업체의 타이어 수출은 1998년 대비 6%가 증가한 14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할 예정이다.

5. 시사점

전세계 타이어산업은 1993년 이후 연평균 2.5~3.0%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97년에는 북미와 서유럽지역의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4%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1998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타이어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료공급업체의 투자가 부진하여 향후 타이어 생산에 일부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국내 타이어업체들은 우선 유로화가 EU

타이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 자본 흐름에서 유럽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의 13%에서 1995년에는 37%로 높아진 반면 달러화는 67%에서 40%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유로화가 향후 5년내에 달러화의 독점적 위치를 깨고 달러화에 버금가는 국제 통화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기업들은 유로화의 출범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영 관행의 조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거래가 단순화되어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가격 설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동안 존재해 온 각국간 가격 차이가 해소되어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경제의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타이어산업의 경우 범세계화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가격면에서의 지역·국가간 격차는 크지 않으나 가격 전략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타이어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될 예상이어서 전세계 타이어산업의 구조개편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한편 유럽지역의 타이어업체들은 유로화의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로화의 출범은 유럽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 타이어업체의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내 경영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유로화 출범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도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저가격 정책을 의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거래선의 유지와 새로운 공급원의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타이어업체들은 Y2K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Y2K는 대형 제조업체뿐 아니라 중소 부품 공급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타이어산업의 수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굳이어서는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Y2K에 대비하고 있으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업체들의 대응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한편 국내 타이어업체들은 우리나라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평가하여 사전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칠레를 필두로 일본, 남아공, 이스라엘, 터키 등을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를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부로 삼을 예정이어서 국내 타이어업체들은 이들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1999년의 세계 경제 환경은 1998년에 비해 열악해질 것이며, 국가간 통상마찰도 빈번해질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은 21세기 초 10년간의 대경쟁(Mega Competition)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 전략과 함께 21세기에 대비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